

정읍시,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신정동 일원 스마트공장 설립
전국 60개 기업 초청 사업 설명회
‘첨단분석시스템-GMP 생산동’
진행 현황·입주 절차 등 정보 공유

정읍시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미생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자 공유인프라 기반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읍시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관해 60여곳의 미생물산업 관련 기업체가 참여한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설명회’가 최근 열렸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첨단분석시스템-GMP 생산동-공유인프라’로 이어지는 시설 구축의 진행 현황과 장비 배치 계획, 기업입주 절차, 지원정책 등이 소개됐고 참석자들은 현장을 시찰하며 세부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2023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미생물산업 기업의 연구·생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정동 일원 연면적 8546㎡ 규모 부지에 아파트형 스마트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읍시와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건립을 추진 중인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아파트형 스마트 공장 조감도.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그린바이오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앞서 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을 구축, 미생물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총 99억원을 들여 자동화·고속화·표준화된 바이오파운드리 장비를 도입했으며 오는 11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시는 이 사업들을 연계해 총 40실의 기업입주 공간과 액상·고상 미생물 제품화 시스템을 갖춘 공동활용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저장·유통·상용화까지 미생물산업 전 주기를 윈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유인프라를 기반으로 40여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며 “정읍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마한문화권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발굴

당시 지방통치체계 밝힐 단서
출토 유물 26일부터 일반 공개
2030년까지 복원 사업 추진

정읍시가 백제 마한문화권 복원과 지역 역사자산 발굴을 위해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나섰다.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km 구역에 분포된 270여 기의 고분 중, 은선리(영원)와 도계리(덕천)에 집중된 횡형식 석실분 56기를 중심으로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고분군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시굴·발굴조사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삼국시대 백제 고분 20기를 새롭게 확인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금제 구슬(金製玉), 금제반지(金製指環) 등 고급 장신구가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백제 웅진기 주요 고분에서 확인되는 수준 높은 유물로, 당시 지방통치체계 및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에 출토된 주요 유물을 26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

〈정읍시 제공〉

경과 동진’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정읍의 마한·백제문화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정읍시는 2026년까지 구역별 정밀 조사를 완료한 뒤, 2027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복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 고대사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대산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지정 고시…혁신단지 등 6대 사업 추진

남원 지역의 농업 기반에 혁신적 전환점이 될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대산면 일원에 들어선다.

남원시는 대산면 일원 60.4ha 부지를 ‘전북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중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지구에는 2029년까지 5년간 938억원이 투입돼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교육·실증단지 등 6대 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원예산업 기반과 전국 최대 통

합마케팅 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해 생산·유통·가공·교육의 전주기 스마트농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 창업농 50농가 유치, 관련 기업 15개사 유치를 목표로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농가의 소득 30%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파시픽투자운용 등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대규모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APC 및 실증단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청정 갯벌에서 ‘추억 만들기’

오늘부터 3일간 축제…걷기·요가·케이팝댄스·먹거리 다채

‘고창갯벌축제’가 13일부터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축제장에서 열린다.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세계가 인정한 갯벌,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고창갯벌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청정 고창갯벌의 아름다움을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갯벌지킴이 건강걷기’ ‘바람공원 힐링요가’ ‘갯벌 케이팝(K-POP)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과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미끌미끌 풍천장어 맨손잡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새우튀김, 꼬막무침, 꼬막비빔밥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는 저렴한 가격에 산지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차려진다. 고창갯벌 홍보관에서는 갯벌의 생태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가 진행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보건소 ‘찾아가는 혈관 검진’ 인기

농민 대상 혈압·동맥경화 등 검사…뇌혈관질환 1:1 상담도

고창군이 농민기 농촌 지역주민의 혈관 건강 지키기를 위해 ‘찾아가는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혈관 검진 프로그램은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과 협력해 평소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가 취약한 지역주민을 위해 읍·면 소재지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검진 항목으로는 혈압, 혈당, 4층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와 체성분 검사, 심방세동(부정맥) 검사, 동맥경화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북권역심

뇌혈관질환센터 전문의(이영훈 교수)가 1:1 맞춤형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군은 찾아가는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상하면을 시작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우체국 등 관내 지역 및 기관을 순회하며 건강관리에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직접 찾아오고 전문가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연극으로 ‘연대 가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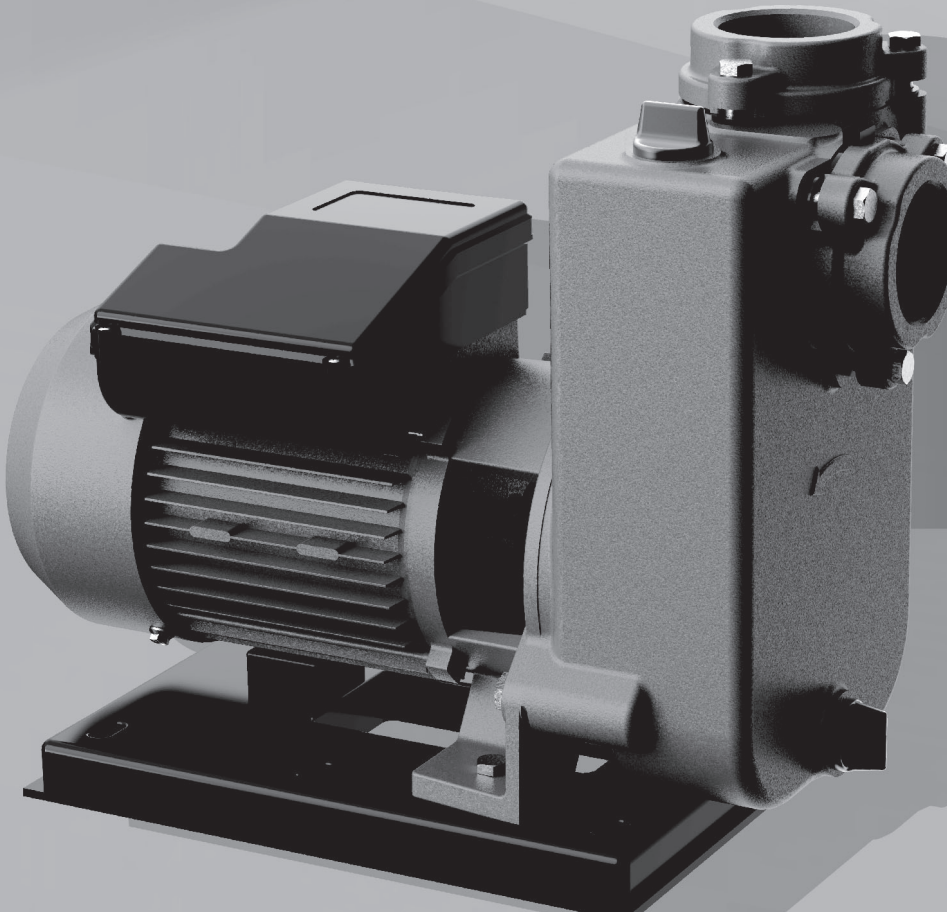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14일 ‘동백당...’ 춘향문예회관

남원시가 시민에게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동백당, 뽕집의 사람들’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공연 작품을 지역의 시민들도 더 가까

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1947년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을 배경으로 해방 직후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연대를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다. 군산이라는 도시와 ‘뽕’이란 소재를 통해 전통과 근대, 개인과 공동체, 실패와 성장이라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